

정신분열증환자 망상 민주화반영

한양대 김광일·어호근 교수 80·90년대 환자 비교

‘망상속 박해자’ 경찰·정보요원 출현빈도 크게 줄어

최근 10년 사이 민주화 흐름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망상 속에 등장하는 박해자의 달라진 모습에 우리 사회의 변화한 모습이 반영되고 있다는 재미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양대 의대 신경정신과학교실 김광일·어호근 교수가 지난 80년 6월~82년 5월, 90년 6월~92년 5월에 한양대병원에 입원한 정신분열증 환자 1백20명씩을 대상으로 망상 속의 박해자를 비교해 본 결과, 경찰·정보요원·군인 등의 출현빈도가 80년대 28.3%에서 90년대 11.7%로 낮아진 대신 불특정인이 7.5%에서 20.0%로 늘어났다.

특히 남자환자들에서는 경찰 등의 빈도가 38.2%에서 14.7%

로 크게 줄었고 불특정인이 2.9%에서 25.0%로 늘었다. 여자환자들에서는 초자연의 존재나 종교적 인물이 1.9%에서 17.8%로 크게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 또 망상 속에서 박해자들의 공격행동도 10년 사이 파괴·심각한 위협·거절 등은 크게 줄거나 사라진 대신 언어적 비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상당히 가벼워졌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망상 속에 나오는 박해자란 환자 내부의 갈등을 투사하는 인물로 흔히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대상을 선택한다”고 전제한 김광일 교수는 “이런 결과는 최근 10년사이 군사독재의 억압적 정치상황이 민주화로 상당히 완화됐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경찰의 사찰, 학원과 민주 인사 탄압, 고문치사 등 5공화국 초기의 정치상황이 환자들의 망상 속에서 쉽게 정치적인물을 투사 대상으로 정하게 했으나, 90년대 들어서는 뚜렷한 지배인물이나 집단이 나타나지 않고 사회적인 관심사도 분산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은 시대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나라의 주권을 잃었던 8·15 이전에는 ‘망했다’는 박탈감, 8·15 이후에는 정치적 망상, 6·25 이후에는 공산당이나 간첩에 관련된 망상이 두드러졌고, 군대나 정치적인 박해에 대한 망상은 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점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애 기자